

혼인 잔치의 비유 (초대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

마태복음 Mathew 22:1-14 / 권준 목사(Pastor James Joon Kwon)

● 들어가기

하나님 나라는 ()하는 자의 나라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삶을 살겠다는 ()의 고백입니다.

● 묵상하기

1. 혼인 잔치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2. 왜 초대를 거절했는가?

()이 없었다는 것.

()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

()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직 ()으로 오라 하시는 하나님이 싫은 것.

3. 초대에 응하고 왔으면 혼인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한다. 예복이란?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의 ()를 받아들이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 적용하기

1. 주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무시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2.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할까요?

3. 나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